

HEADLINE NEWS

쾌적한 도심 가로공간 창출 위해 자동차환경마크제 도입 (런던)

영국 런던시는 최근 도심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도심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심부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환경마크(Eco-mark badge)」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 개개인과 택시운행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마크를 취득한 차량에는 도심부 공공건물 부설 주차장과 가로변 주차공간 무료 이용, 전기충전시설 무료 이용, 2006년 시행 예정인 런던 도심부 혼잡세 100% 감면, 주차 세금 33%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도심부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장려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차량(electric or gas vehicles)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자동차환경마크 제도의 목적, 세제혜택 내용, 신청서 양식,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와 안내책자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www.westminster.gov.uk/environment/pollution/ecomark/cf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야간에 제설사업 실시 (뉴욕)
- ② 장기 공간개발전략 「런던계획」 초안 발표 (런던)
- ③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통근비용 감소 위해 직주(職住) 근접정책 시행 (볼티모어)

도시환경

- ④ 대기오염 저감 위해 「배출삭감 신용은행」 운영 (시카고)

도시교통

- ⑤ 도크랜드 경전철에 '산타클로스' 배치해 어린이에게 선물 전달 (런던)
- ⑥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 (오타와)
- ⑦ 고속도로 안개경보시스템 설치 캘리포니아 州:세크라멘토)

사회복지

- ⑧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레드테이프 커터 프로그램」 시행 (시카고)

행정재정

- ⑨ 송년축제의 일환으로 도심 광장에 임시 스케이트장 설치 (파리)
- ⑩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에 맞게 거리 조성 베를린 / 리용
- ⑪ 지역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커뮤니티활동집단 육성 사업」 실시 (시즈오카縣)
- ⑫ 인터넷을 통해 시민대상 가계부채 상담 (베를린)

① 야간에 제설사업 실시 (뉴욕)

미국 뉴욕市 공중위생국은 눈과 빙판길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2교대로 인력을 운용해 야간제설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市공중위생국은 市 59개 구역에 대해 각각 인력을 할당, 배치했으며, 소금 256,000톤, 염화칼슘 190,000캐런, 살포기 353대를 33개 시설에 배치해두고 있다. 또한, 거리나 고속도로에 눈이 내리면 2,000대의 제설기가 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국의 야간 근무자들은 눈이 오지 않는 평상시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를 하게 된다. 한밤중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은 약간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市는 최대한 조용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www.nyc.gov/html/dos/html/pressrel/lpr21107.html)

② 장기 공간개발전략 「런던계획」 초안 발표 (런던)

영국 런던市는 최근 런던의 미래 공간개발전략(spatial development strategy)의 기초가 되는 「런던계획(London Plan)」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2001년도에 발간된 보고서 '런던계획에 관해(Towards the London Plan)'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장래 삶의 질, 성장 지속가능성, 성공 기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런던의 장기발전비전인 「런던계획」은 3가지 주제, 즉 장기 경제성장 방안, 모든 시민들이 미래의 성공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vity) 방안, 환경과 자원 사용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등에 기초해 수립되었다.

이 계획안은 시민 및 전문가의 자문과 공개심의회의를 거쳐 2003년 3월 최종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이 공개심의회에서는 계획의 정교함, 효과, 타 전략 및 정부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현행 「런던개발 전략지침(strategic planning guidance for London)」을 대신하게 된다. 이 계획안은 419쪽의 분량으로, 전문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www.london.gov.uk/approot/mayor/strategies/sds/index.jsp)

③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통근비용 감소 위해 직주(職住)근접정책 시행 (볼티모어)

미국 메릴랜드(Maryland)주는 직장 다니는 주민들이 그들의 직장 부근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직주(職住)근접정책인 「Live Near Your Work(LNYW)」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통근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NYW 프로그램은 메릴랜드주가 도시성장 관리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Smart Growth」 전략의 일환으로, 市에서 지정한 LNYW 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州당국 및 지방정부, 직장에서 3,000달러를 지원해줌으로써 직주근접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내부 시가지의 주택보유율을 높임으로써 쇠퇴중인 시가지의 재생을 촉진하고, 직장인들의 통근시간을 줄임으로써 교통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LNYW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175명을 대상으로 州당국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83%가 볼티모어市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자 중에서 통근을 위해 도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전의 49명에서 73명으로 49%가 증가한 반면, 승용차 이용자는 101명에서 61명으로 39.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근소요시간이 10분 이내인 사람들이 이전의 54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www.mdp.state.md.us/smartgrowth/lnyw.htm)

4 대기오염 저감 위해 「배출삭감 신용은행」 운영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1995년에 「배출삭감 신용은행(Emission Reduction Credit Bank)」을 설립,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대기오염 크레딧(Air Pollution Credits)」를 거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배출삭감 신용은행」의 목적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허가 크레딧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市는 이 「배출삭감 신용은행」을 통해 연방정부와 州정부의 대기오염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체,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Ms)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대기오염 크레딧」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공장을 짓거나 확장할 때 반드시 州정부 대기오염 배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 허가는 오염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 크레딧(emission credits)」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이 오염배출 크레딧은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市에서는 「배출삭감 신용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배출 크레딧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배출 크레딧을 일정하게 퇴출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있다. 즉, 기업이 배출 크레딧을 사용할 경우, 오염배출량을 저감해 크레딧의 30%를 州정부에 영구 반납해야 하고, 이 반납된 배출 크레딧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카고의 대기오염은 반납된 배출 크레딧만큼 자연히 저감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은 대기환경기준이 요구하는 수준 이하로 오염배출량을 저감시켰을 경우, 저감된 양만큼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을 은행에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나중에 기업이 연방세를 감면받는 데 활용되며, 은행은 이 크레딧을 다른 기업에 빌려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장려하게 된다. 따라서, 「배출삭감 신용은행」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도 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배출 크레딧량을 조절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오염배출량을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www.nyc.gov/html/om/html/2002b/pr254-02.html)

5 도크랜드 경전철에 ‘산타클로스’ 배치해 어린이에게 선물 전달 (런던)

영국 도크랜드 경전철(Dockland Light Rail; DLR)은 12월 2일부터 성탄절까지 매주 토·일요일 DLR의 Canary Wharf驛에 ‘산타클로스’를 배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산타클로스’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驛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성탄 기념품과 가방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부모들도 ‘산타클로스’와 기념촬영을 할 수 있고, 주변에 비치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작성하거나, 양초, 달력 등도 만들 수 있다. (www.tfl.gov.uk/dlr)

6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추진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市는 버스 승객 수를 늘리고 자가용 이용자 수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버스에 GPS시스템, 자동 승객 카운트 기기, 목적지 표시 안내판, 버스위치정보 관련장치 및 전자 요금 징수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市교통당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 차량 고장에 대한 신속 대응, 승하차 시간 단축, 요금 정산비용 절감, 이용자정보시스템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1,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2003년에는 17대의 굴절버스를 도입하고, 도시 외곽 지역에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520만 달러를 투자해 기존 선로를 개선하고, 노선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 그밖에 ‘Park & Ride’ 시설 개선, 버스 정비, 온라인 노선 정보,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한편, 자가용 대신 도보,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장려하는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다.

(www.canada.com/technology/story.html?id=%7B6E982D54-5A90-44BA-A823-B8F30D3E0CF7%7D)

7 고속도로 안개경보시스템 설치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안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안개경보시스템을 주요 도로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안개가 끼면 도로에 설치된 안개 센서를 통해 이 사실을 교통관리센터로 전송하고, 센터에서는 라디오 및 고속도로 정보안내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주 교통국은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안개 발생시 자주 일어나는 연쇄 추돌과 같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개경보 프로그램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500피트(약 150m) 이하로 떨어지면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라이트를 켜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수준이다.

(www.mercedsun-star.com/news/281765301127189.shtml)

8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레드테이프 커터 프로그램」 시행 (시카고)

미국 시카고시는 「레드테이프 커터 프로그램(Red Tape Cutter's Program)」을 통해 노인들에게 매년 1,000만 달러가 넘는 추가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는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 노인들이 어떤 복지프로그램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몰라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 점을 고려해 1,000여 개가 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노인의 프로필과 대조해 노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식량배급표, 세금 면제, 주택 지원, 교통 지원, 헬스 케어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레드테이프 커터 프로그램」은 '정부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수여하는 '정부혁신상'의 준결승에 진출해 있다. (www.ci.chi.il.us/Mayor/2002press/news_press_innovations.html)

9] 송년축제의 일환으로 도심 광장에 임시 스케이트장 설치 (파리)

프랑스 파리는 올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세 곳에 설치, 일반시민을 무료로 입장시킬 계획이다. 시청광장에 설치되는 1,200m² 규모의 스케이트장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개장되어 주중에는 오후 10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전에는 학생들과 강습생들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일반에게 개방된다.

15區的 라울도트리 광장과 19區의 스탈린그라드전투 광장에 각각 800m² 규모의 임시 스케이트장이 설치되며, 입장료는 없고, 스케이트 임대료는 5유로이다. 4區의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는 스케이트장에는 6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별도 놀이공간이 마련되며, 크리스마스 회전목마도 설치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www.paris-france.org/FR/actualites/patinoire/default.htm)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에 맞게 거리 조성 (베를린 / 리옹)

독일 베를린에서는 정부청사 주변과 쿠담거리에 약 70만 유로를 투자해 성탄과 연말 분위기에 맞는 거리로 장식했다. 우선, 동서화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문의 양옆으로 환한 불빛을 장식하고 있으며, 쿠담거리에는 12만개의 전등으로 약 7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가로수길에 성탄트리 장식을 했다. 설치물들은 매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히게 되며,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된다. 설치비용의 약 50% 정도를 일반 상점과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한편, 프랑스 리옹시는 ‘조명의 물결’이라는 주제 아래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도시전체 차원의 조명축제를 개최했다. 이는 1852년부터 매년 12월 8일이면 도심의 창문에 불을 밝히는 전통적인 행사를 계승한 것으로, 올해 150주년이 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200여 곳에서 매일 밤 불을 밝혔으며, 기업체, 특수연구소,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 및 참여가 있었다.

(Berliner Morgenpost, 11. 26) (www.mairie-lyon.fr/fr/focus/fetelumieres/edito/edito1.html)

지역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커뮤니티활동집단 육성사업’ 실시 (시즈오카縣)

일본 시즈오카縣 총무부 지역진흥실의 「커뮤니티만들기추진협의회」에서는 ‘커뮤니티활동집단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핵집단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 내에 있는 커뮤니티활동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집단과 기존 커뮤니티 집단을 각각 15개씩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협의회 구성단체 또는 시읍면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선정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2년간의 활동에 대해 커뮤니티당 10만엔을 지원하는데, 첫해에는 7만엔, 그 다음해에는 3만엔을 지원한다. 강사 및 조연자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한다. 강사나 조연자는 협의회에서 위촉하는 전문위원으로 하고, 강의료와 여비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www.pref.shizuoka.jp/soumu/sm-06/03shien/kohyo/01soumu/001.html)

인터넷을 통해 시민대상 가계부채 상담 (베를린)

독일 베를린市에서는 현재 평균 10가구당 1가구가 약 4만 유로(약 4,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는 市전체의 약 18만 가구에 해당된다. 가계빚의 내용은 주택임대와 월세가 1순위이며, 가족부양과 생활 소비가 그 다음이다. 또한 빚진 대부분의 시민들은 장기 실업자이거나 사회부조를 받는 생활보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빚진 사람들의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세에서 22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층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주로 월세, 대출과 카드이용대금 때문에 빚을 진다.

이에 따라, 市는 가계부채 상담창구 개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가계부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부채 상담창구를 시민들이 꺼린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상담은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원활한 경제 운영에 대한 조언과 심리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Berliner Morgenpost, 12. 2)